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돈은 바다에 있다 바다를 개발하자

지난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었다. 지난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을 계기로 해양환경에 능동적 대응하고,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됐었다.

우리나라는 지형이 한반도에 있어 바다에 접한 해안선이 많으며 특히 서해안은 해안선의 드나들이 많고 바다가 얇은 대륙붕 지역의 바다가 넓으며, 남해안은 다도해를 이루고 있어 서식하는 해조류와 어족이 풍부하며,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하고 고기떼가 모여든다. 이러한 바다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생산소득원으로 이용해 농어촌 지방소득을 높이고 있다.

바다를 이용하는 데서 개발하고 활용하며 잡는 어업에서 양식하는 어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바다를 어떻게 잘 개발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역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런 바다의 여건을 잘 이용해 선진화 자립의 길을 가고 있는 지자체가 완도군이다.

완도군은 26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군도로 이루어져, 리아스식 해안으로 갯벌과 해조류가 숲을 이루고 2천200여 종의 바다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자체가 되면서 '모두가 행복한 완도'를 만들려고 바다를 이용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양식업으로 전환사업을 추진했다. 완도 바다를

보면 바다가 온통 부유식 양식장으로 변했으며 여기에서 연중 미역 김 다시마 매생이 톳을 비롯한 해조류 생산과 점복 굴 멍게 우렁쉥이 홍합 등의 어패류 생산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인근 바닷가엔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광어 돔 송어 뱀장어 등의 양식으로 어가 소득을 올린다.

수산물 생산이 자연 상태의 잡고 채취하는 어업에서 양식하는 양식어업으로 발전했다. 자연 상태로 있던 바다가 양식장으로 변한 것이다. 한편 갯벌은 꼬막 맛 양식장으로 조성해 연간 채취소득을 올리고 있다. 벼농사를 선호하던 시대에는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만들었으며 갯벌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벼농사는 일 년에 한번 소득밖에 못 하는데 갯벌에서는 꼬막을 비롯한 어패류와 각종 수산물이 번식하고 있어 거기에서는 벼농사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영산강 하굿둑 공사가 있기 전 영산강 하류는 육수와 해수의 교차로 장어 송어 등 수 많은 어족과 굴 꼬막 맛 등의 어패류가 많아 농어가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하굿둑 공사 후 수질이 오염되고 서식 어패류가 없어졌으며 갯벌간척지에서는 연 1회의 벼농사 소득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산강 하굿둑 수문 조절을 해 바닷물이 옛날처럼 드나들게 해 어패류가 서식하게 해 농가 소득을 올리게 하고, 벼농사

소득이 낮은 간척지는 역 간척지 양식 어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구상 추진해야 한다. 바닷가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바다에서 수산업도 하는 농어가 산업구조는 부를 창출하게 한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장흥군 노력도 섬은 가난한 섬마을이었지만, 섬 주민이 바다에 관심을 두고 양식 사업을 시작했으며 집집이 선박을 건조하고 농업과 어업을 같이해 사업을 추진해 융자한 빚을 갚고 부자 마을로 발전한 대표적인 농어촌이었다. 이제 노력도는 회진과 연육 사업추진으로 섬이 아닌 육도가 됐으며 노력항이 준설패 제주도 여객선이 드나드는 장흥군의 관문인 노력항으로 발전했다.

육지와 인접한 바다는 이용하려는데 뜻을 둔다면 돈은 바다에서 생기게 되고 노력에 따라 무진장 어촌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바다는 생산 소득을 올리는 농토로써 구실을 한다. 그래서 어촌 사람들은 바다를 구획 지어 개인 소유지역으로 자치회에서 설정 인정받아 바다를 경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자체가 완도군이다. 완도군에서는 어촌 선진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앞서는 자립 자치 군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바다를 안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돈은 바다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바다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추진했으면 한다.

독자기고

## '대형공사장 화재' 방심하는 순간 되풀이된다

### 장범래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장

지난 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경,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물류창고는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불이 난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2층에 연면적 1만1천43㎡로 이루어진 냉동, 냉장, 물류창고로 용접 작업 등으로 인근 가연성 소재에 옮겨붙으며 폭발적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3년(2019~2021년) 전체 화재 7천590건 중 공사장 화재 108건(1.4%)이 발생, 인명피해 1명(부상)이 발생했다. 재산피해 774억 원 대비 건축 공사장 화재 7억 5천만 원(0.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용접·절단(47건, 43.5%), 담배꽂초(14건, 12.9%), 불꽃(8건, 7.4%), 가연물 근접(4건, 3.7%) 순으로 부주의 요인(89건, 82.4%)이 가장 높았다.

통계를 보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3년간 연이은 공사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 많은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사장은 화기 취급, 가연성 소재, 여전한 낮은 안전의식 등 여건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은 넓은 비산(飛散) 반경으로 화재 위험성이 크므로 점화원 비산 방지 등 안전조치 및 인화성액체 등 가연물을 방치하면 안 된다. 감독자와 사업주는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화재 감시자 배치,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법령에 규정된 화재 예방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등 법 준수가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공사장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 관계자 합동 긴급회 개최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관계자 참여 무각본 가상화재 대응훈련 등을 실시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공사장 관계자의 높은 안전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재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우리 모두 방심하는 순간 대형 참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해 평소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다시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힘내라 광주시민, 힘내라 광주경제

마스크 외출자제 손씻기

← 2m →

#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를 이깁니다

간접재난지원금 | 대한민국정부 | 광주광역시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 101번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전광선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윤규진		
주필 정기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 전복 대파 울금

#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